

# HOLY HABIT MOVEMENT PART 1

## 3. 구별

1.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이 생긴 것처럼,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이름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을 각각 적어 봅시다.

- 포로가 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새 신분,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학문, 철학, 종교를 머리에 채우도록 교육받았고, 이름 또한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이지만, 벨드사살은 “벨이 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벨에게 속하기를 강요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문화를 배우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념과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 세상에서 나를 부르는 이름(호칭, 직함, 별명, 온라인 닉네임 등) / ex. 가족들이 불러주는 나의 별명, 회사나 학교(학원)에서 불리는 직함 혹은 신분, 의미 있는 이메일 아이디 등
-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 ex.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에게 주신 정체성(하나님의 자녀, 청지기, 파수꾼, 양, 신부 등)

2.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현재 나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삶의 태도라는 측면에서 점검해 봅시다.

- 실제로 다니엘은 자신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그 이름을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원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더욱 강조하여 사용합니다(단 8:1, 9:2a). 또한 다니엘은 자신이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에 걸맞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경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독교 세계관, 즉 세상과는 다른 독특한 태도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삶의 목적과 중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고전 10:31, 롬 12:1-2). 반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성공, 자아 성취와 실현 등 개인적인 목표와 욕구를 중심으로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2) 가치관과 기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사랑, 용서, 겸손, 희생과 같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관련된 가치를 우선시합니다(골 3:12-14).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 문화, 개인의 신념이 기준이 되어 가치관과 기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때론 잘못된 규범과 문화여도 신념에만 맞는다면 거리낌 없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3) 삶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고난과 같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롬 8:28, 약 1:2-4).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인간적인 방법(때로는 악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삶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며 좌절하여 포기하기도 합니다.

4) 타인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마 5:44, 22:39).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친절과 도움을 베풀기는 하지만,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5) 영원의 시각: 하나님의 백성은 현세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빌 3:20, 히 11:13-16).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현세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여 이 땅에서의 성공과 만족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해 불신합니다.

- 인도자는, 위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알고 나눔 할 때 훨씬 풍성한 나눔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작은 실천이어도 좋습니다.

- 이 나눔에 중요한 포커스는 복음 전파, 전도를 위해 1) 전도대상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나의 삶에서 보여져야 할 구체적인 신앙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2) 전도대상자를 섬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 단순한 복음 전파, 전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고 나누어봅시다.

4. 시험 기간이나 업무가 예배 시간과 겹칠 때, 바쁜 일정에 밀려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할 때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세상 속 나의 역할이 충돌할 때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결국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 이러한 정체성의 재확인 and 확신은 우선순위 점검과 정체성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서의 성취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요 1:12)
- 결론적으로, 삶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바쁜 중에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 신앙을 실천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나의 휴대전화 속 앱(애플리케이션)을 구별해 봅시다. 정직하게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쾌락을 주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앱은 무엇인가요? 그중 하나를 삭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TV 시청, 컴퓨터 사용 시간이나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합니다.)

- 이 적용과 나눔 질문은, 4번과 연결하여 우선순위 점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조차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시간 낭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필요 이상의 SNS와 영상 시청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 스마트폰마다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하루 동안 얼마나 스마트폰을 사용했는지를 추적하고, 특정 앱에 할애한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나의 하루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앱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1.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이름도 부여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 다니엘은 새로운 지식과 이름을 부여받은 상황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변해갔지만, 오히려 자신만큼은 그 흐름에 동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했습니다(단 6:13). 바벨론이 다니엘의 이름과 삶의 환경은 전부 바꾸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념과 믿음까지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 한편, 이 질문은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되어보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관점으로 자유롭게 나누며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 바벨론 사람들은 지혜자, 주술사, 마술사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능력 있다고 평가하나요?

- 느부갓네살 왕은 불안하게 만드는 꿈을 꾸었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 주술사, 마술사들에게 자신이 꾸는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도 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분노하며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지체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 그는 친구들(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꿈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과 그 해석을 계시하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냅니다.
-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리더, 전문 기술을 갖춘 기술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능력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세상에는, 그 뛰어나고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도 결국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먼저 소유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3.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지혜로우시며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믿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근원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답해본 이후, 가족들과 함께 솔직하게 나누어봅시다.

1) 다니엘과 같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하는가?

2)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3) 다니엘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도우려 하는가? 아니면 지나치는가?

---

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 '적용과 나눔 2번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